

총선 순천 대진표 확정

지역구 재선을 노리는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노관규 전 순천 시장, 국민의당 구희승 변호사, 민주당 최용준 전 한국청년회의소(JC) 중앙회장, 민중연합당 정오균 전 순천대 총학생회장, 무소속 박상욱 전 전남교육희망연대 집행위원장 등이 나섰다.

이번 총선에서는 이 의원과 더민주, 국민의당 후보 간 경쟁이 주목을 끈다. 일단 노관규·구희승 두 야당 후보가 치열하게 접전을 벌인다면 이 의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역 의원이 이 후보는 고정표를 가진 대신 야권의 표가 분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구 재획정에 따라 기존 순천·곡성 선거구에서 이 후보의 고향인 곡성이 떨어져 나가면서 상황이 변했다. 지난 2014년 7·30 보궐선거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7700여표(당시 2위 후보에 앞선 곡성 표)가 남아있었다. 따라서 승패의 관건은 야당 표 분산 효과와 곡성 이탈 효과 중 어느 것이 더 큰지에 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 후보는

與 이정현 재선이나 野 노관규·구희승 탈환이나



정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민주당	민중연합당	무소속
이름	이정현	노관규	구희승	최용준	정오균	박상욱
나이	57	55	53	54	39	51
역력	·현 국회의원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현 변호사 ·전 순천시장	·전 산자부 서기관 ·전 광주지법 판사	·현 당 순천·곡성 지역위원장 ·전 JC 중앙회장	·전 순천대 총학생회장 ·전 국회의원 보좌관	·전 전남교육희망연대 집행위원장 ·전 민노총전남본부장

6명 경쟁 ... 전국적 관심시

野 표 분산·與 곡성 분리

승패는 어떤 영향 크냐에 달려

일찍잡지 단수공천을 받고 상대 후보를 기다리고 있다. 그는 지난 2014년 7월 보궐선거에서 승리 후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주민들과 회로예약을 함께하며 지역구 바닥을 다져왔다. 그는 특히 조직선거를 지양

하는 대신 '이정현이 한번 더 달리면 순천이 확 탈환된다'며 여당 후보로서의 장점인 각종 공약을 내세우는 정책선거에 집중하고 있다.

현역 의원을 경선에서 이기고 본선에 오른 더민주 노 후보는 순천만정원박람회 기획, 유지한 주인공이다. 오랫동안 총선에 대비해 조직력이 우수하다. 요즘도 초심으로 돌아가 '그레도 노관규'라는 깃발을 꽂은 배낭을 메고 순천의 구석구석을 훑으며 지역구 바닥을 다지고 있다. 특히 경선

에서 패배한 김광진 의원이 본선에서 노 후보를 돕겠다고 공언, 천군만마를 얻었다.

국민의당은 22일에서야 구희승 변호사를 공천 확정했다. 경쟁한 정치신인들을 물리치고 본선에 오른 구 후보는 순천에서 오랫동안 정치활동을 해와 인지도가 높다. 그는 특히 "사시와 행사 협력 후 경제부처 15년, 판사 6년, 국제 통상 업무 추진 등 그동안 갈고 닦은 역량이 지역을 위해서 쓰여졌으면 좋겠다"며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장현 광주복지재단 대표 후보

시의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광주시의회가 22일 제2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장현(59) 초대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했다.

인택 위원장을 비롯한 9명 인사청문위원들은 그동안 후보자의 재산과 납세, 경력, 도덕성, 운영 비전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대표로서의 자질 평가를 해왔다.

청문회 평가 결과 원만한 성품에다 사회 복지 전문가이면서, 광주 복지에 대한 이해력이 높고 민선6기 정부특보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시와의 협력적 상호소통으로 복지재단을 이끄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다만, 잦은 선거 출마에 따른 정치적 성향과 독자성·주도성에 대한 우려, 조직운영 미경험으로 인한 조직장악 능력과 리더십에 대한 우려는 단점으로 꼽혔다.

청문회는 장단점 분석 결과 "대표직 수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내렸다.

임기는 3년이며, 보수는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사와 같은 수준이다.

지난해 7월 출범한 광주복지재단은 두 번의 공모에도 적격자를 찾지 못해 대표이사 공석 사태가 장기화됐다.

첫 공모에서 내렸던 군산대 염기욱 교수가 정치적 편향성 논란으로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해 낙마했고, 두번째 공모 역시 적임자 논란으로 무산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北, 청와대 위협 장면 공개

공개했다.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TV는 22일 '예술영화 명령만 내리시라 후편이 준비되고 있다'는 제목의 영상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조준한 뒤 폭파하는 장면을 만들어

벨기에 브뤼셀공항 폭발 최소 14명 사망

IS조직원 보복 테러 추정

2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제1공항과 지하철역에서 잇따라 폭발이 발생해 수십명이 사망했다.

공항 폭발의 원인이 자살폭탄 테러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최근 벨기에 당국이 파리 테러의 주범인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조직원 살라 압데를 람을 체포한 데 대한 보복 테러가 아니냐

는 추정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날 오전 8시께 브뤼셀 자네펜 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두 차례의 커다란 폭발음이 울리고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 폭발로 최소 1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RTL 방송이 보도했다.

정확한 폭발 원인을 밝혀지지 않았으나 폭발 직전에 출국장에서 총성이 울리고 아랍어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고 벨기에 벨가 통신이 보도했다. 이 중 최소 1번의 폭

발은 미국 아메리칸항공 체킨인 구역 인근에서 벌어졌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번 폭발 사고 직후 공항으로 통하는 철도 운행이 모두 중단됐고 폭발 후 모든 항공기의 자네펜 공항 이착륙이 중단됐다. 유럽항공관제기구인 유로콘트롤은 브뤼셀 공항을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전면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폭발은 지난해 11월 130명의 목숨을 앗아간 파리 테러의 주범 중 유일한 생존자인 압테슬람이 도주 4개월 만인 지난 18일 브뤼셀에서 체포된 지 4일 만에 발생했다. /연합뉴스

무등산 주상절리대·화순 적벽 등

유네스코 지질공원 인증 현지실사

실사단 8명 참여

오늘부터 이틀간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작업이 본격적으로 올랐다.

광주시는 23일부터 이틀간 무등산 주상절리대와 전남 화순 적벽 등에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을 위한 현지실사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실사는 2014년말 환경부가 무등산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하면서 제시한 조건이다. 실사단은 환경부와 국가지질공원사무국, 국가지질공원위원회 위원 등 8명이 참여하며 이 중 3명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신청 후보지 선정 위원이다.

광주시는 유네스코 지질공원 인증 신청을 위한 사전단계로 이번 실사의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실사단은 국가지질공원 관리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구축 등을 점검한다.

광주시는 이날 중 인증추진단을 구성하고 4월께 환경부에 의향서를 제출한 뒤 해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달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타당성 조사 및 연구·관리 용역도 발주했다.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기는 오는 10~11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 사무국은 환경부와 한국 유네스코를 거쳐 의향서와 신청서를 접수하

는 대로 신청서 검토, 지질학 분야 서류 심사, 현장평가, 심사결과 작성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사무소가 이사회에 추천하면 2018년 4월께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석대, 입석대, 광석대 등 23개 지질명소와 무진고성, 환벽당 등 22개 비지질명소를 아우르는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은 광주, 전남 화순·담양 등 246㎢에 걸쳐 있다.

무등산 정상 서석대, 입석대, 규봉 등 병풍을 두른 듯한 주상절리대는 천연기념물 제465호로 지정돼 지질학적 보존 가치를 인정받았다.

무등산 주상절리대는 폭이 9m에 이르며 분포 면적도 11㎢에 달해 여의도(8.4㎢)보다 넓다.

특히 서석대와 입석대 등 주상절리대의 높이는 20~30m, 폭 40~120m에 달해 한반도 중남부에서는 최대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지질공원은 제주도, 울릉도·독도, 부산, 청송, 강원도 비무장지대(DMZ) 일대 평화지역, 무등산권, 한탄·임진강 일대 등 7곳이 지정됐다.

세계지질공원은 지난해 10월 현재 중국 33곳, 스페인 11곳, 이탈리아 10곳, 일본 8곳 등 세계 120곳이 지정됐다.

국내에서는 2010년 제주도가 유일하게 인증을 받았으며 청송은 지난해 말 신청서를 제출하고 부산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민선 10년 외국기업 실투자율 저조

MOU 110곳 중 실투자금액 4.1% 불과

주경남 시의원 지적

광주시의 지난 10년간 외국 기업 실투자 비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협약(MOU) 때 제시된 투자금액 대비 실투자율은 채 5%에도 미치지 못했다.

민선 10년간 광주에 동지를 튼 외국 기업은 34곳에 불과했다.

22일 광주시의회 주경남(서구4)의원 따르면 민선 4기(2006년)부터 민선 6기(2015년말)까지 외국 기업 투자유치 실적은 지난해 11월 130명의 목숨을 앗아간 파리 테러의 주범 중 유일한 생존자인 압테슬람이 도주 4개월 만인 지난 18일 브뤼셀에서 체포된 지 4일 만에 발생했다. /연합뉴스

으나 실제 투자로 이어진 업체는 34곳에 그쳤다.

협약금액은 2조7167억원에 달했으나, 실투자금액은 1107억 원에 지나지 않았다. 일자리 창출도 4887명을 예상했으나 6분 1 수준인 738명이었다. 단체장 별로 보면 강운태 시장 재임 기간인 민선 5기(2010~2014년) 실적이 가장 저조했다.

70개 업체와 2조2305억원, 2797명 고용 계획으로 협약했으나 실투자는 17개 업체(24.3%)에 621억원(2.8%), 384명(13.7%) 고용에 그쳤다.

2014년 7월부터 민선 6기, 1년반 협약 내용은 11개 업체와 1327억원, 1240명이었으나 실투자는 6개 업체(54.5%), 금액 112억원(8.4%), 34명(2.7%)에 불과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의 **스마일 수술**  
(Small Incision Lenticule Extraction)

라식·라섹의 단점은 최소화! 장점은 극대화 한 시력교정수술

- 신경손상이 적어 안구건조증 감소
- 뛰어난 회복속도 빠른 일상생활 가능
- 각막을 열지 않아 외부충격에 더 안전
- 만족스러운 결과, 1.0 이상 90% 시력유지
- 우수한 시력 예측, 시력예측도 가장 우수
- 더욱 또렷하고 선명한 시력교정!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역: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양막 / 눈성형 / 노안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태영21 병원**  
TAEYOUNG 21 HOSPITAL

**당뇨병-갑상선 건강강좌**

좌장 · 이문규 교수(삼성서울병원, 현 당뇨병학회 이사장)  
강사 · 김재현 교수(삼성서울병원, 현 당뇨병학회 총무이사)  
강호철 교수(화산전대병원)  
김순호 부장(광주기독병원)  
김상용 교수(조선대병원, 현 당뇨병학회 수석 부총무)  
양태영 원장(태영21병원, 현 당뇨병학회 일차진료 이사)

일시 · 2016년 3월 26일(토) 오후 3:30~4:30  
장소 · 태영21병원 2층 세미나실  
문의 · 062)362-0075(광주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태영21병원 제22회 정기 음악회  
3월 18일(금) PM 6:30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태영21로 100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태영21병원